

# 수학보고서

소속	인문대학/중어중문학과(대학(학부)/전공)	
파견국가	대만	
파견대학	Tamkang University	
파견기간	시작	2024.02(년/월)
	종료	2024.06(년/월)

준비과정	국제교류프로그램에 지원하기까지 과정
	교환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시기가 되었을 때부터 매 학기 교환학생 공고를 확인하여 준비해야 하는 어학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저는 <b>HSK</b> 와 토익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번 학기에 확인한 정보와 다음 학기의 정보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기준보다 높게 잡아 안전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파견교 지원 과정
	1순위로 희망했던 국가가 대만이었습니다. 수도이거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를 선호하였습니다. 복수 전공 수업도 들어야 했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 복수 전공 수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과가 있는 지 확인하였습니다. 담강대학교의 경우 타이페이까지 지하철로 환승없이 갈 수 있었고 어학당 수업이 있었으며 복수전공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어 수업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파견교에서 메일로 연락이 왔을 때 여권, 지원서, 영문 성적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파견국가 출국 준비 과정 (비자, 항공권, 준비물 등)
	파견교에서 비자 관련 서류나 과정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b>PPT</b> 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자의 경우 발급받는 데 일주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준비하다가 어려운 점이 생겼을 때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를 주셨고 질의응답 속도가 빨라서 좋았습니다. 항공권은 위탁 수화물을 많이 넣을 수 있는 비행기로 구매하였습니다. 보험은 삼성 글로벌 케어 서비스에 가입하였습니다. 파견교에 제출하는 용과 비자 연장 시 제출할 서류를 한국에서 미리 프린트해서 갔습니다. 건강검진의 경우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병원에서 확인 받는 방법을 이용하였습니다.
파견학교	공항 픽업 & 오리엔테이션

	<p>파견교에서 제공해주는 픽업서비스를 신청하였습니다. 비행기와 도착시간을 제출하였고 당일 출국장에서 국제교류처 선생님과 현지 버디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픽업차량을 타고 기숙사에 도착하여 기숙사비를 내고 설명을 듣는 등의 서류 절차를 끝내고 버디 친구들과 필요한 생활용품을 사러 갔습니다.</p> <p>도착 다음 날 아침에 어학당 레벨 테스트를 보러 갔습니다. 수강신청과 관련된 오리엔테이션은 개강 첫 날 이루어졌습니다. 첫 날 서류 꾸러미를 받았는데 그 곳에 확인 받으러 가야 하는 장소와 오리엔테이션 장소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p>
	<p><b>수업 &amp; 학교 활동</b></p>
	<p>저는 전공 수업 2개, 교양 1개, 어학당 수업 3개를 수강하였습니다. 어학당 수업의 경우 레벨테스트 결과와 다르게 원하는 반에서 수업을 들어도 됩니다. 개강하고 2주정도 여러 수업을 들어보면서 원하는 수업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어학당 수업의 경우에는 원하는 반 수강신청이 거의 가능했는데 전공 수업의 경우에는 드물게 사람이 너무 많으면 초과 인원을 안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교양 수업을 제외하고는 중간/기말고사가 모두 있었습니다. 전공 수업의 경우에는 1번의 팀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담강대학교의 경우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학과가 따로 있었습니다.</p> <p>VOIS라는 동아리 친구들이 주최하는 활동에 참여하여 다양한 국가의 친구들과 게임도 하고 시티투어를 하였습니다. 챗코너를 통해 현지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놀러가기도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현지친구들을 만날 기회를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p>
	<p><b>기숙사 및 학교 내 편의 시설</b></p>
	<p>담강대학교에는 3개의 기숙사가 있는데 제가 지내던 기숙사는 국제학생 전용 기숙사라서 외국인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3인실과 4인실이 있으며 남자층과 여자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각 층마다 세탁기/건조기, 샤워실/화장실, 냉장고, 싱크대와 테이블이 있습니다. 3층에는 공용 주방이 있고 기본적인 조리기구가 일부 있습니다. 지하층에는 탁구대와 각종 보드게임 등이 있어 기숙사 친구들과 밤에 같이 많이 놀았습니다.</p> <p>학교 내부에는 교내 서점, 카페, 편의점, 교내 식당 등이 있습니다.</p>
주변환경	<p><b>거주지 주변 지역 정보</b></p>
	<p>주변에는 마트가 3개 있고 지하철 타고 조금 나가면 큰 까르푸가 1개 있습니다. 편의점과 드럭스토어 등 편의 시설이 주변에 있습니다. 기숙사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어 단수이 역이나 단수이 관광지에 가기가 쉽습니다. 단수이 역, 단수이 라오지에, 단수이 야시장은 걸어서 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입니다.</p>
	<p><b>파견 대학 소재지 지역 정보</b></p>

	<p>식비가 저렴한 편이었습니다 100~200 정도면 한 끼를 먹을 수 있습니다. 단수이역에서 학교까지 버스로는 10분 정도, 걸어서는 20분 정도 걸립니다. 단수이는 바다와 가까워서 습하지만 대만의 북쪽에 위치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시원합니다.</p>
비용	<p><b>등록금 (해당 학생만)</b></p>
	<p><b>기숙사 비용 (해당 학생만, 학기당)</b></p>
	<p>대만 달러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기숙사비용 11100                      보증금 2000                      키보증금 100                      에어컨 비용은 룸메이트들과 나눠서 냈습니다. 에어컨을 많이 돌리는 편이었고 한 달에 인당 400 정도 냈던 것 같습니다. 보증금은 교환학생이 끝날 때 퇴실 절차가 끝나면 돌려받았습니다.</p>
	<p><b>추가 비용 (교재비, 보험 등)</b></p>
	<p>보험의 경우는 학교에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학생 단체 보험이 있고 그 외는 개인적으로 들은 보험 영문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학교에서 연계해주는 것을 가입하면 되었습니다.                      필수 보험 2500                      교재비의 경우 어학당 교재만 구매하면 되어서 750 정도 사용하였습니다.                      유심은 어학당 레벨테스트 끝나고 학교에서 공동으로 진행하는 180일 데이터 무제한 유심으로 하여 2300에 구매하였습니다.</p>
	<p><b>생활비</b></p>
	<p>80~100만원</p>
	<p><b>한달 평균 지출 비용</b></p>
	<p>100만원</p>
교환학생 기간 동안 느낀 점	
<p>교환학생은 행복하고 뜻깊은 경험이었습니다. 다양한 국가에서 온 친구들과 학교 생활을 하며 상호작용한 경험은 저를 한 층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언어적 실력이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각의 범위도 확장되었습니다. 대만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인터넷과 책으로는 알 수 없었던 대만 문화를 알게 되었습니다. 대만 문화와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대만 친구들과 대화하며 생활 중국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만 외의 외국인 친구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들과 중국어로 대화하는 저의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였고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한국어를 가르쳐주며 서로의 언어를 교류하였습니다. 특히 국제학생 기숙사에서 지냈기 때문에 대화를 하고 여행을 다니며 외국인 친구들과 같이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았고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더 많이 대화하기 위해 더 공부해가겠다는 학습 동기를 유발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새로운 환경에서 마주하는 일들은 흥미로웠습니다. 작은</p>	

[별첨] 수학보고서

일이더라도 해외에서 스스로 해결했다는 생각에 자신감이 생기고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비교적 많은 시간적 여유 속에서 나를 고민해보기도 하고 다양한 친구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기도 하였습니다. 교환학생을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꼭 도전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진 첨부 (최소 5장)

